

언어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본 차별과 혐오의 담론

박성열

싱가폴 국립대학교

ellpjs@nus.edu.sg*

최근 한국 사회의 중요한 변동 중 하나는 사회의 다원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후기자본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한 다양한 관점들의 교류로 인해 다양한 이익을 대변하는 복수의 담론이 형성되고 전파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다양성은 그동안 억압되어왔던 목소리들에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의 진보를 이루는 데 기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러한 목소리들에 맞서는 담론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의 담론들이 그 예이다.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과 혐오는 한국 사회에서 늘 존재해 왔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담론들을 조직화되고 공적 정치의 장에서 수용되면서 사회적 갈등의 뿌리가 되기도 한다.

차별과 혐오의 담론은 한국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담론은 한국어를 통해 작동할 뿐 아니라, 한국어에 내재된 문화와 가치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한국어가 단지 어휘와 문법으로 구성된 추상적 구조/체계가 아니라 한국의 사회적, 공동체적 경험을 담아내는 매개라고 생각한다면, 혐오와 차별의 담론이 한국어 안에 확산되는 현상 또한 한국어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려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변동과 한국어의 미래"를 논하는 이 자리에서 차별과 혐오의 담론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한국 사회에서 드러나는 차별과 혐오의 담론들 자체에 대한 비판은 여러 사람들이 제시한 바 있으므로(조태린 2018, 홍성수 2018)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신 오늘 발표에서는 언어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러한 담론을 바라볼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관점은 "언어 이데올로기"의 관점이다. 언어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언어에 대해 갖고 있는 관념이나 믿음을 가리킨다(Gal and Irvine 2019, Schieffelin et al 1997, Silverstein 1979). 최근의 언어학 연구는 이러한 언어 이데올로기가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언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언어사용자들이 언어가 사용되는 양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이데올로기는, 단지 언어사용자들의 주관적 해석을 넘어서 사회 속에서의 권력관계를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언어를 "표준어"로 인식하고 그에 "올바름", "합리성" 또는 "세련됨"의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언어 이데올로기는 표준어와 그 표준어를 구사하는 이들에게 부여된 권력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현상들의 비판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그 언어현상 뒤에 자리하는 언어 이데올로기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만 그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사회현상의 본질을 왜곡하고 권력의 재생산과 정당화에 기여하는지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 담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언어 이데올로기의 개념이 중요한 이

유는, 그러한 담론이 언어를 통해 나타날 뿐 아니라 메타담론, 즉 담론에 대한 담론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차별과 혐오의 언어는 늘 존재해 왔지만, 한국 사회의 다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혐오의 담론은 그동안 억압되었으나 이제 조금씩 그 공간을 찾기 시작하는 소수자의 목소리에 대한 반발과 대응의 형태를 갖추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별과 혐오 담론 자체의 위상을 규정하는 담론이 차별과 혐오 담론의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언어 이데올로기는 차별과 혐오의 발화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의 이면에 존재하는 권력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정당화하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최근의 차별과 혐오 발언들은 욕설, 비속어, 그 외에 차별을 전제로 하는 표현들도 포함하지만(이정복 2017, 조태린 2011), 눈에 띄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권리와 공정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차별과 혐오 발언들이 확산된다는 점이다. "페미니즘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인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린다" "퀴어축제 같은 행사를 보지 않을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 "시험을 통과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등이 그러한 예들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주장들은 권리와 공정이라는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펼치는 이들로 하여금 "우리는 차별주의자, 혐오 세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일종의 메타담론이라는 사실은, 페미니즘, 다문화, 성소수자들의 권리 찾기, 비정규직 노동 운동 등의 담론과 자신을 대항 관계에 놓고, 담론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정의하고자 한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어 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담론의 특징은, 언어 행위가 사회적이고 체화된 존재로서의 화자와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위와 같은 담론은 화자의 사회적 특권, 편견, 그리고 증오나 멸시의 감정과는 무관한, 객관적 사회적 가치에 근거한 발언이기 때문에 차별 또는 혐오 담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물론 현대 한국 사회의 혐오 담론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어를 사회적 삶과는 독립된 추상적 의미 전달 체계로 이해하는 관점은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큰 역할을 발휘한 바 있다. 17-18세기 부르주아 남성들은 자신의 언어가 사적인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지닌 언어라고 믿었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그러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여성이나 노동자 계급과는 달리) 사회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위치에 있다고 내세우는 근거가 되었다(Bauman and Briggs 2003). 그러나 물론 이러한 언어 이데올로기는 객관적 언어의 차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부르주아 남성들의 특권 의식과 차별의 반영이었다. 다시 말해 언어 이데올로기는 부르주아 남성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다른 인간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했다. 이러한 예는 언어와 화자의 사회적 존재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어를 사회적 삶과 독립된 의미 전달체계로 보는 이데올로기가 오늘날의 차별과 혐오의 담론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권리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내세우지 않는 차별과 혐오의 표현들과 비교해보면 더 선명히 드러난다. 욕설이나 비속어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차별과 혐오의 표현들은 굳이 그 사회적 기반을 숨기지 않는다. 모든 언어 행위는 지시적 (혹은 문자적) 의미만을 내포하지 않고, 그 언어 행위의 사회적 맥락을 가리키는 지표적 (혹은 사회적) 의미도 필연적으로 포함한다. 이는 차별과 혐오의 표현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누군가가 특정 소수자를 비하하여 부르는 욕설을 했다고 가정하자. 이 언어 행위는 듣는 이들의 의식 속에 다양한 의미들을 불러 일으킨다. 그 의미에는 욕설의 단어 자체가 가리키는 지시적 의미(즉 욕설을 통해 호명된 특정

인종, 성별, 성적 지향, 계급 등의 사람)뿐만 아니라 발화의 문맥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의미들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욕설은 발화한 사람의 감정상태("증오와 흥분")나 태도("멸시와 비하")도 가리킨다(실제로 욕설의 핵심적인 속성은 그 지시적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지표적 의미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욕을 한 사람의 사회적 위치("예의 없는 사람")나 욕설이 발화된 사회적 맥락("보수적인 한국 사회")도 욕설에 의해 전달되는 사회적 의미에 포함될 것이다. 이것은 "혐오하거나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라는 말이 혐오 표현을 정당화해 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혐오와 차별은 화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언어의 지표성 자체를 통해 발동되기 때문이다 (Butler 1997).

권리와 공정을 내세우는 최근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 담론이 이러한 욕설 등과 다른 점은, 이러한 언어의 사회적 기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리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 혐오 표현을 발화하는 행위는, 그 표현이 발화자의 감정이나 태도 또는 발화자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체화된 존재로서의 화자와는 독립된 "공정" 또는 "권리"라는 체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 이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양성 사이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게 아니라 반대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인종주의가 아니라 안전한 한국 사회를 지키려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다" 등의 주장의 핵심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언어를 사회적 맥락과는 독립된 의미 전달체계로 이해하는 언어 이데올로기이다. 즉 논리성과 합리성으로 언어를 가다듬기만 한다면, 언어는 화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배경에 의해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위와 같은 주장들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객관적인 논리에 근거한 주장이라고 내세울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생산하는 몇몇 소집단들은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근거로 자신들의 언어를 정화하고 그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종차별적 언어, 과격한 언어사용"을 금지하는 반다문화 인터넷 카페들이 그 예가 될 것이다(김성윤 2018, 전의령 2017).

그러나, 물론 언어 이데올로기는 현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에 불과하고, 언어의 지표적 속성은 모든 언어 행위의 속성이기 때문에, 권리와 공정을 내세우는 최근 한국 사회의 차별과 혐오 표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러한 담론이 여전히 발화자의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태도를 가리키며, 혐오와 증오의 감정을 듣는 이에게 전달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의미 전달체계로서의 언어라는 이데올로기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말했듯이 이 언어 이데올로기는 최근의 혐오 표현에서 새로이 나타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이다. 특히 근대적 공적 정치의 영역은 객관적인 의미 전달체계로서의 언어가 가능하다는 믿음 아래 작동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이데올로기는, 권리와 공정을 내세우는 혐오 표현들이 공적인 정치의 장으로 스며드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욕설의 형태로 나타나는 혐오 표현은 공적 정치의 영역에 진입하는 데 제약이 있다. 앞서 말했듯이 화자의 감정과 사회적 특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욕설은 공적 정치의 영역에 적합한 언어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권리와 공정을 내세우는 혐오 표현의 발화자들은, 언어의 사회적 기반을 숨기지 않는 기존의 혐오 표현들과 자신들의 담론을 구별함으로써 공적 정치의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자 한다. 실제로 소수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을 제외한 폭넓은 범주의 정치인들이 이러한 담론을 다원화된 한국 사회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목소리들 중 하나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객관적 의미

전달체계로서의 언어의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언어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매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역으로 생각해서 언어 이데올로기는 새롭게 확산되는 차별과 혐오의 담론에 맞서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객관적 의미 전달체계로서의 언어의 이데올로기가 권리와 공정을 내세우는 차별과 혐오의 담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면, 이 이데올로기의 편협성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것 역시 그러한 담론의 허구성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차별과 혐오의 담론이 이러한 언어 이데올로기로 포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한국 사회 안에서 이러한 담론의 입지가 취약해지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차별과 혐오 담론에 대해 언어학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언어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화자와 분리된 의미 전달체계로서의 언어의 이데올로기는 단지 차별과 혐오의 담론에 의해서만 활용되지 않고, 다양한 공적 언어의 장에서 속된 언어, 감정적인 언어, 표준화되지 않은 언어를 걸러낸다는 명목 아래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언어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이해는 어떻게 차별과 혐오의 담론이 이러한 권력구조에 기생하며 다원화된 한국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고,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과 불평등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것은 변화해 가는 한국 사회 속에서의 한국어의 위치를 고민하는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다.

참고 문헌

- 김성윤(2018),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아요", 진화된 혐오 담론으로서 젠더 이퀄리즘과 반다문화. 문화과학 93, 93-119.
- 이정복(2017),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혐오, 차별 표현. 새국어생활 27(3), 9-31.
- 전의령(2017), 인터넷 반다문화 담론의 우익 포퓰리즘과 배제의 정치. 경제와 사회 116, 396-423.
- 조태린(2011), 차별적 언어 표현과 사회 갈등의 문제. 나라사랑 120, 388-410.
- 조태린(2018),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와 혐오표현의 문제.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편), 한중일 언어를 통해 본 삼국의 사회와 문화, 92-106. 한국문화사.
- 홍성수(2018), 말이 칼이 될 때: 혐오표현은 무엇이고 왜 문제인가?, 서울: 어크로스.
- Bauman, Richard, & Briggs, Charles L.(2003). *Voices of Modernity: Language Ideologies and the Politics of Inequ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tler, Judith(1997).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Routledge.
- Gal, Susan, & Irvine, Judith T.(2019). *Signs of difference: Language and ideology in social lif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effelin, Bambi B., Woolard, Kathryn A., & Kroskrity, Paul V. (Eds.). (1998). *Language Ideologies: Practice and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Silverstein, Michael(1979). Language structure and linguistic ideology. P. R. Clyne, W. F. Hanks, & C. L. Hofbauer (Eds.), *The Elements: A Parasession on Linguistic Units and Levels*, 193-247. Chicago Linguistic Society.